

추밀공파 정간공 추향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정간공 추향제가 11월 21일 10시 30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 60-35에 위치한 정간공 묘소(향토유적 제36호)에서 권병돈 정간공 회장,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권병돈 청수공 회장, 권오열 권혁열 전 강릉중진회장, 권기준 문경공 종손, 권용주 매헌공 종중 고문, 권순호 전 매헌공 종중 회장, 권태관 매헌공 종중 회장, 권태환 권혁열 대종회 이사, 권오달 종보편집위원,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권영정 권혁중 종중추진회 회장, 권양순 권병희 권병무 문충공 후손 등 15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특히 용산에 거주하는 권양순씨는 여성으로서 작년부터 향사에 참석했는데 금년에는 조카인 권병희, 권병주씨까지 데리고 와 눈길을 끌었다. 권양순씨는 "추향제에 오니까 정답고 권씨 가문이 번창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더라. 그래서 또 왔다"고 말했다.



추향제에서는 헌관으로 초헌관 권영환, 아헌관 권오현, 종헌관 권오협, 집례 권오상, 대축 권영준, 판집례 권오성, 봉향 권혁철 등으로 분방하여 헌작하였다. 추향제를 마친 종원들은 권병돈 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상응례, 회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재무보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임원선출 순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병돈 회장은 인

사말에서 "날씨가 좋다. 금년 추향제에는 평소보다 20-30명 더 온 것 같다. 감사드린다. 정간공 회장과 감사는 선출하게 되어 있다. 오늘은 지난 종무위원회 회의에서 새로 선임한 회장을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면 추대된다"고 말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했다. 감사보고는 권오협 감사가 보고했다. 정기총회 추진안건으로는 회장과 감사의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종약 제3장 제10조 2항에 의거 회장과 감사 선출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종원들은 지난 11월 7일 종무위원회에서 선임된 권병돈 장수공 회장을 정간공 선임 회장으로 큰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권병돈 선임 회장은 수락 인사말에서 "부족한 저를 정간공 회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중 종원 여러분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 정간공 종회 발전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실망시키지 않겠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입 감사로 평후공 종중에는 권병호, 매헌공 종중에는 권영현 직진을 선출했고, 권오협 감사는 종약에 의거 유임됐다. 종원들은 그동안 수고한 권병돈 정간공 회장과 감사에게 큰 박수를 격려했다. 이외에도 여러 현안문제와 안건이 상정되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진행되어 12시 40분에서야 회의를 마쳤다.

추향제와 정기총회를 모두 마친 종원들은 문중끼리 또는 삼삼오오 점심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귀가길에 올랐다. 권영환 편집국장

검교공파 파조 추향제 및 정기총회



권정택 파종회 회장과 서울파친회 권태정 회장

검교공파종회(회장 권정택)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 경북 상주시 공검면 을



곡리 소재 승덕산 파조(碑諱 諱備)의 단소에서 파조 추향제 봉행 및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파친들이 참석하여 성황리 봉행되었다. 초헌관 권기식 파종손, 아헌관 권중수 부회장, 종헌관 권영민 운영위원, 집례 권오열 상임부회장, 축관 권혁만 운영위원으로 분방하여 헌작하였다. 음복례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회 선언,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께 망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정택 파종회장은 바쁜 일정을 마치고 멀리서 참



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파종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한편 권태정 서울 파친회장은 파종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인사하였다. 권오섭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권영호 종무부장의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였다. 기타토의 사항으로는 단소 주위 소나무 제선종방제, 단소 전면의 죽은 은행나무 제거 등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고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회의를 모두 마쳤다.

권영호 종무부장

추밀공파 총제공 추향제 봉행

추밀공파 총제공(總制公) 권천(權謙, 미상-1431, 17世)의 추향제가 11월 12일(일) 충주시 금류동 광명산에 위치한 묘소에서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등 4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총제공은 양촌 권근의 맏아들로서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總制)에 이르렀고 원주에 있는 경순왕 사당을 중창하였으며, 완산부윤으로 재직 시에 흉년이 들자 관아의 곡식을 베풀어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나주목사 때는 선정을 베풀어 지방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이날 초헌관에는 권영창, 아헌관에는 권학중, 종헌관에는 권태

환, 집례는 권세환, 대축에는 권오협으로 분방하여 헌작하였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문충공 양촌 권근 삼대 묘소 추향제 봉행

문충공 양촌 권근 삼대 묘소 추향제가 11월 11일 충북 음성군 생곡면 방축리(능안로 377-15)에 위치한 삼대 묘소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은 "문충공 선조를 비롯하여 네 분 선조님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추은 날씨에도 추향제에 참석하여 주신 종원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충공 양촌 권근 삼대 묘소 추향제가 11월 11일 충북 음성군 생곡면 방축리(능안로 377-15)에 위치한 삼대 묘소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은 "문충공 선조를 비롯하여 네 분 선조님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추은 날씨에도 추향제에 참석하여 주신 종원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묘역에는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16世)과 둘째 아

들 문경공(文景公) 지재(止齋) 권제(權繼, 1387~1445, 17世) 그리고 양촌의 손자 익평공(翼平公) 소한당(所開堂) 권람(權廉, 1416~1465, 18世) 삼대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양촌은 조선 초대 대제학을 지냈고 지재 권제와 손자 소한당 권람 삼대에 걸쳐 문장을 관장하는 문헌(文衡)을 역임했다. 소한당은 한명회(韓明澮)와 함께 세조의 핵심 공신 중 한 명이었다. 삼대 묘소 및 신도비는 충청북도 기념물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양촌의 사남인 안숙공(安肅公) 권준(權準, 1405-1459, 17世)의 묘소도 삼대 묘소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종원들은 함께 추향제를 봉행했다.

이날 문충공 헌관에는 초헌관 권영욱, 아헌관 권영우, 종헌관 권오협, 대축 권영준, 집례 권오상으로 분방하였다. 문경공 헌관에는 초헌관 권기준, 아헌관 권영우, 종헌관 권태우로 각각 분정하였고, 익평공 헌관에는 초헌관 권순봉, 아헌관 권오달, 종헌관 권영정으로 분정하여 헌작하였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추밀공파 대사간공 권평 추향제 봉행

추밀공파 대사간공 권평(權評, 1515~1575, 21世) 추향제가 11월 11일(토)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에 자리한 선영에서 2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초헌관 권복진, 아헌관 권순우, 종헌관 권동일, 집례 권상경으로 분방하여 헌작하였다. 대사간공 권평은 문충공 양촌 권근의 맏아들 총제공 권천의 후

손이다. 계유정난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있다 1456년 2년 사육신의 상왕 복위 운동이 실패하자 경기도 광주로는 은둔하여 거둬 집소해도 나가지 않다가 전라북도 정읍으로 낙향한 농고재(農髡齋) 권열(權悅)의 손자이다. 권열은 호를 귀묵고 눈이 멀었다는 의미의 농고재(農髡齋)라고 짓고 신숙주 동생 신달주와 교유하

며 산수(山水)와 벗했다.

종원들은 추향제를 마치고 권상경 총무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총에서는 권순일 선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권상경 총무는 유임되었고, 권점주, 권복진씨를 선임 감사로 선출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과 권상경 총무는 나주시 봉향면 옥곡리에 위치한 권영희(權寧喜, 보명譜名 권찬식權瓚植, 1885-1910, 34世) 의병장의 총절비를 참배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

북야공파 서주공계 16世 휘諱 "의(義)" 제단 건립

서주공(瑞州公, 휘 시중時中)의 막내 아들 휘 의(義)(직장공直長公)의 묘소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봉향(奉享)하지 못하다가 강릉과 안동 가곡에 사는 아드님 판관공(17세 휘 심深) 후손들이 힘을 모아 제단을 건립하고 지난 11월 8일 첫 시제를 봉행하였다. 제단을 건립한 장소는 경북 울진군 평해읍 광포리 산 27-2번지로 그 아드님 판관공 묘소와 손자 대사성공(18세 휘 종儉) 묘소 중간 지점에 설단하여 3대를 한 곳에 모시게 되었다.

이날 강릉과 안동 가곡, 평해 현지에서 100여 명의 후손이 모여 첫 제향을 엄숙히 봉행하였으며 특히 이 자리에는 직장공의 큰



형님 되시는 16세 휘諱 度度의 후손인 모헌공(慕軒公)계 권영일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이 영천에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권기동 강릉중진회 사무국장

<특별기고> 권인호(權仁浩, 철학박사, 대전대 명예교수, 한국동양철학회 고문)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41)



이에 앞서 일본은 1872. 10. 중국(淸國)에게 유구왕국(琉球王國) [한(朝鮮)-청국(淸)-일본(日本)의 사스마(薩摩) 번(藩)의 세 나라에 조공과 교역]을 '일본의 류큐(琉球) 번(藩)으로 한다'고 외교 교섭하고, 유구의 어민이 타이완(臺灣)의 북부에서 피살된 것을 핑계로 1874년 7. 대만에 침략을 감행했다.

사회경제사적 논의는 그의 선사(先師)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 1874-1930. 동경제대 경제대 교수)의 '한국의 역사에서 봉건사회 부재론'을 통해 한국의 후진성과 실제 감정의 정당성 등 역사왜곡을 바로 잡으려 하였다. '백남운이 1933년 8월 8일 새벽에 '현해탄(玄海灘) 위의 관부연락선' 석수환(德壽丸) 안에서 붉게 떠오른 서광을 바라보면서 쓴 '조선사회 경제사' 서문 가운데서, "특히 근세 조선사상 유형원(柳馨遠), 이익(李瀾), 정약용(丁若鏞), 서유곡(徐有榘), 박지원(朴趾源) 등 이른바 '현실학과(실학파)'라고도 할 수 있는 우수한 학자가 배출되어 우리의 경제학적 분야에 선물로서 남겨준 업적은 결코 적지 않았다. 더구나 근래에 조선경제사의 분야에 착안한 최초의 학자는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선 선사 후쿠다 도쿠조 박사가 아니었던가? 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점에서 나는 그에 상응할 수 없었다."고 일종의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백남운은 자신의 죽은 스승 후쿠다 교수에 대한 존경의 칭호를 쓰면서도 당시 식민지 조선출신 제자로서, '진리에 대해서만 큰 스승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나아가 실제 침략내지 한국 강점과 지배의 정당성에 복무하게 되는 역사왜곡 이론'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백남운, 박광순 역, '조선사회경제사', 범우사, 1989) 하지만 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집필을 완성하지 못하고, 1933년 "조선사회경제사"와 1937년 "조선봉건 사회경제사"로서 고려시대 말기로 끝나고 근세조선 이후의 사회경제사에 대한 저서가 없다.

1879. 3. 무력으로 유구왕 상태(尚泰)를 동경(東京)으로 끌고 오고 유구번을 '오키나와(沖繩) 현(縣)'으로 하였다. 1945년 3월-6월 23일 전투에서 약 20만 명의 현민(縣民)이 사망하였고, 미국에 패전으로 오키나와는 미국령이 되었다가 1972년에 반환 되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전체면적(2271㎢) 약 11%에 달하는 245.26㎢에 해병대를 중심으로 42개의 미군기지에 2만 9천명이 주둔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와다 하루키, 이원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9)

중국(1912. 1. 1. 남경(南京)에서 '중화민국(中華民國)' 성립으로 정체와 국체를 민주공화국 선포)과는 다르게, 일본은 이른바 '쇼와유신(昭和維新)과 동아연맹론'을 1937년 무렵 발표하며 천황 절대주의와 군국주의로 수구반동적 회귀를 하며 한국(조선)에 이어 중국과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치달았다. 이로 인하여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전쟁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에 이어 일제는 만주사변-상해사변-중일전쟁-대동아전쟁으로 동아시아 민중 2천 5백여만 명과 일본 신민(臣民) 350여만 명의 희생을 강요했다. 이 점에 대해 소와 일왕 히로히토(裕仁)가 특A급 전범(戰犯)으로서 그 죄 값을 치루지 않았고 이제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은, 히로히토 스스로의 무책임한 태도와 연합군 총사령부(GHQ) 사령관(SCAP) D. 맥아더의 월권행위(에드워드 베르, 유경찬 옮김, "히로히토"(신화의 뒤편), 유희문화사, 2002)를 질책하기에 앞서 일본인의 불행(?)이었던 것이다.

그 불행은 다시금 역사왜곡과 낱조, 일본군 헌법 제9조 ②항의 개정 운동과 재무장 및 천황 절대주의의 공고화나 1999년 8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주의 부활(가리아 데스, 슈가 사토 그림, 김원식 옮김, "천황을 알아야 일본이 보인다", 세계인, 2002)이나 국경인 집 국가와의 영토 분쟁으로 다시금 제국주의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만연행동(妄言盲動)의 결과에 대한 경구가 있는데, 즉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민족의 비참한 말로는 이전의 불행은 확대재생산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이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충고이다.

한편,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약 100여 일에 가까운 촛불시위와 네티즌들의 대정부 격렬한 비판 글에 대해, 일본의 대학교수가 신문(2008.6.30. <도쿄신문> 석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본 한국형 민주주의')에 이 두근한 글과 연관이 있을 법한 칼럼(교토京都대학 대학원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49세, 인간환경연구과 교수)을 소개한 신문기사(2008.7.28. <한겨레신문> 28면 [이 사람, '촛불집회'를 분석한 오구라 기조 교도대 교수]이다. 그는 "한국의 촛불집회는 유교의 전통에 따른 내발적이고 특이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이를 바탕으로 급진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였다)가 주목되었다. 그는 1988-96년 한국에 유학(留學)하여 한국철학과 한국문화사학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는 "조선왕조에서 성공관이라는 국립중앙유교대학의 엘리트들이 왕에게 직소(直疏)할 일이 있으면 광화문에 모여 데모를 할 잘못된 왕을 바로잡았으며, 그런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였다. 즉 성공관의 태학생(太學生); 儒生)들이 조정의 정책이나 왕의 결정이 부당할 경우(유교적 민본 정치사상)이나, 그宗旨인 '修己治人' 등의 기준에 '유소(儒疏); 유생; 태학생 성명서)나 '권당(權堂; 동맹휴학)', '복함상소(伏閣上疏; 대궐 앞 집단 농성시위)를 했던 유교적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사회정치적 현실과 미래전망과 역사발전과 시대구분의 문제에서 백남운(白南雲, 1894-1979)의 좌파적인

다음호에 계속